

2025년 국제 현충일 쉬임 특별 집회 표어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이 로맨스가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

회복 안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참된 일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기질상의 거룩하게 함이 없이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성취될 길이 없다.

신약의 용법에 따르면, '성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자라고 온전해진 것을 가리킨다.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형상을 이룬 놀라운 술람미가 될 것이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이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 주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상징이다.

202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국제 현충일 쉬임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부를 준비함

메시지 1
신부 — 주님의 회복의 목표

성경: 계 19:7-9, 요 1:29, 3:29, 아 1:2-3, 8:14

- I.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 요 3:29, 마 25:6, 계 19:7, 21:2, 22:17.**
- A. 역대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 계셨다. 하나님은 배필을 얻으시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 창 1:26.
- B.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며,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막 12:30, 엡 3:14-19.
- C.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이며, 아가는 이 로맨스의 요약본이다 — 아 1:2-3, 8:14.
1. 성경은 로맨틱한 책이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로맨틱하게 되어야 한다.
 2. 만일 우리와 주 예수님 사이에 로맨스가 없다면, 그때 우리는 로맨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다 — 아 1:2-3.
 3. ‘로맨스’는 신성한 구애에 관한 이야기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고 계심을 본다 — 고후 11:2.
 4. 아가는 로맨스 이상의 것이다. 아가는 환상적인 로맨스이다.
- D.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우리의 온 마음, 심지어 우리의 온 존재는 그것에 고정되고 사로잡히고 점유된다 — 딤후 6:10-11, 딤후 3:2-4, 4:8, 10상, 딤후 1:8.
1.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막 12:30)—를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2:9 각주 1)
 2.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향하게 하며, 그분께 열어 드리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께 첫째 지위를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 — 마 26:6-13, 고후 3:16, 막 12:30, 골 1:18, 고전 6:17, 빌 1:20-21, 영한 동변 찬송가 477장 2절(한국복음서원 찬송가 366장 2절).
- II.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밝혀 준다.**
- A. 어린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 창 2:22, 롬 5:10, 계 19:7-9, 21:2, 9-11.
- B.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다 — 계 19:7-9, 비교 창 2:22, 마 16:18.
- C. 모든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 년 동안 신성한 초기 단계의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 계 19:7.
- D.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과 합하여져,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완결하고 완성할 것이다 — 계 21:2, 9-11.

Ⅲ. 신부는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 — 계 19:7-9.

A.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 계 19:7.

1.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시작에서 어린양과 신랑에 대해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다고 말한다 — 요 1:29, 3:29.
2. 대부분의 성도들의 휴거(계 14:16, 살전 4:15-16)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위한 심판(계 11:18, 고후 5:10)이 있는 직후에 이어지는 일들에는 틀림없이 어린양의 결혼이 있을 것이다(계 19:7하).
 - a.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결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 b.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묘사된 것처럼 손실을 입을 것이다.

B.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 계 19:7하.

1. ‘그분의 아내’는 교회(엡 5:24-25, 31-32), 곧 그리스도의 신부(요 3:29)를 가리킨다.
2.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천년왕국 동안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아내인 신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천년왕국 이후 영원토록 있게 된다.
3.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 계 19:7, 히 6:1, 빌 3:12-15, 엡 4:13.
4. 우리는 금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진주이신 아들 하나님과 보석들이신 영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고 완결해야 한다 — 계 21:2, 19상, 고전 3:12, 아 1:10-11.
5.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한 신부이다.
6. 이기는 이들은 생명이 성숙할 뿐 아니라 한 신부로 함께 건축되어 있다.

C.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 계 19:8.

1. ‘깨끗한’은 본성을 가리키고, ‘빛나고’는 표현을 가리킨다.
2. ‘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의로운 행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3. 이 절에서 ‘의’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은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고전 1:30.
4. 구원을 위해 받은 의는 객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의 의는 주관적인 것이며(빌 3:9), 이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5. 따라서 세마포는 우리의 이기는 생활, 이기는 삶을 가리킨다. 세마포는 바로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 낸 그리스도이다.

D.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 계 19:9.

1. 어린양의 결혼 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오는 결혼 잔치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루와 같은 천 년 동안의 왕국이며,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 계 19:9, 마 22:2, 11-14, 벧후 3:8.
2. 이기는 믿는 이들을 천년왕국의 누림 안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복된 것이다 — 계 19:9.
3.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 어린양의 결혼 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오는 결혼 잔치이다. 이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것이다.
 - a. 부름받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롬 1:7, 고전 1:2, 엡 4:1), 선택받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다.
 - b. 오직 이기는 이들만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결혼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이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c.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을 이기는 믿는 이들은 또한 어린양의 신부일 것이다 — 계 19:8-9.